

완충포장재 연구개발에 전력

품질인증 동시 취득 경쟁력 확보

ISO 9002 · 100PPM 획득 쾌거

포장완충재 가공 생산 전문업체인 (주)영동이 포장완충재분야에서 처음으로 ISO 9002와 100PPM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영동은 지난 10월말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ISO 9002 품질인증시스템 인증획득과 중소기업청 및 100PPM 품질혁신 추진본부로부터 100PPM 품질인증을 주 생산품인 폴리에틸렌 시트백(PE BAG), 폴리에틸렌 폼 시트롤, 폴리에틸렌 보드에 대해 2가지 인증을 동시에 취득, 향후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영동은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에 위치, 포장완충재 가공생산 및 포장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지난 1992년 7월에 설립됐다.

‘우리는 하나씩 바꾸고 반드시 실천한다’는 사시를 바탕으로 경영자를 비롯한 전 종업원이 항상 연구하고 개선하는 자세로 고객우선주의를 실현, 창립 4년만에 가능성과 비전을 창출, 제시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 생산품은 폴리에틸렌시트백과 Roll, 폴리에틸렌 보드(PE BOARD)를 절단하여 프레스 작업후 어셈블리 가공하는 것인데 생산품들은 저가격이지만 고품위를 유지하는 포장완충재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외에 스폰지, 에어캡, 생광분해 및 자크백, 부직포 등을 이용한 포장완충재 모든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포장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연구개발팀의 수십년간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포장설계를 자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단납에 샘플작업이 가능하여 소비자요구 및 납품조건(DROP TEST, 진동 TEST, 냉온·습습TEST 등)에 따라 완충포장설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요 납품처로는 삼성전자(주), LG전자(주) 등 굴지의 가전회사들은 물론이고 완충포장을 요하는 업체들이 대다수가 이 회사 제품을 사용



▲ 전항식(주)영동 사장



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는 개선활동을 실시하여 눈으로 보는 관리 및 물류흐름 개선, 간이 자동화를 실시, 고생산 및 불량없는 공정을 실현하여 확실한 거래체제로 고객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단납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김진표 관리이사를 중심으로 ISO 9002 인증취득, 100PPM 품질인증 취득을 목표로 전담조직을 구성, 분야별 실무요원과 품질감사요원을 선발하여 사외교육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1년여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 2가지 인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품질인증시스템인증 획득이 완성이 아니라 또다른 목표를 위한 시작이라는 영동은 앞으로 ISO 14000 환경경영시스템 인증획득을 추진하고 협력업체들에게 업체지도를 실시하여 입고단계에서부터 불량을 관리하여 협력업체도 ISO 9000 인증취득을 유도해 나가고 올해 안으로 ISO 9002 인증추진에서 결정된 표준화

사항을 전산시스템 개발에 접목시켜 전사의 ON-LINE화를 구축하여 생산관리, 판매관리, 업무의 질을 LEVEL UP시켜 3~5년후 대외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업무 효율화의 선진화,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

제품소개

이번에 품질을 인증받은 PE BAG은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되며 뛰어난 복원력, 완충성, 단열성을 가진 PE 발포시트와 필름을 열접착시켜 독특한 완충성으로 가전제품, 정밀기기 및 광학기등의 제품을 제조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물류흐름 전과정에서 외부의 악조건으로부터 1차보호 가능한 속포장용 제품이다.

특성으로는 유연성, 완충성이 좋고 흡수성이 없어 수분에 의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으며, 내약품성, 내후성이 우수하여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미세한 기포체로 표면이 매끄럽고 외관이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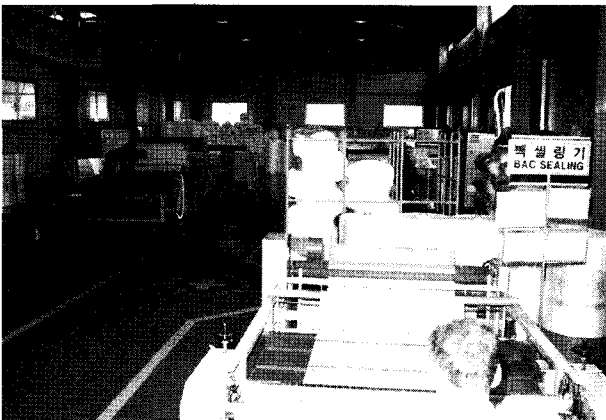
NITRON이란 상품명의 사용 용도는 가전제

품, 가구, 광학기기, 도자기등의 손상방지 포장재로 사용되고, 지하외벽 방수층 보호재, 지하철, 터널, 가교등의 신축이음부, 지붕단열재, 자체방수 및 방진재등의 도목 건축용재, 야외용 매트리스, 보온 보냉가방, 각종 가방등 내심재, 부력성이 좋아 구명복 및 구명환등의 부양재와 각종 스포츠용품의 심재로 사용되고 있다.

폭넓은 용도를 가진 시트형태의 니트론은 우수한 단열성 및 내후성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보온재, 육묘용 보온덮개와 수산용 부력재료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관리·생산 문서 체계화

인간완성, 장기계획, 협동봉사의 사훈과 체계적인 목표관리, 체계적인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경영방침에 따라 26명의 전직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영동산업은 종업원들의 복지시설에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휴게실, 노래방, 식당, 헬스장, 기숙사 등은 물론이고 종업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내의 교육 및 연수, 단체보험 가입 등 조금이라도 더 직원들의 편의와 윤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잘 정돈된 (주)영동 공장 내부 전경

13년간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대기업과의 경쟁력은 기술개발과 직원관리를 깨달은 전항식 사장은 잘 먹고 잘 놀아야 일도 잘한다는 지론으로 직원들과 틈나는 대로 대화와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격이 없는 토의를 한다.

이런 가운데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회사 운영에 대한 힌트를 얻어 이를 검토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최고의 회사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사장이 이 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81년 직장생활을 하던중 종이를 이용한 완충재 포장비용이 비싸다는 것에 착안, 환경에 문제가 없고 재활용이 쉬운 방법과 사례를 수집, 현재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의 재질을 찾아내게 되었고 이를 실용화, 성공을 거두고 있다.

“가격 차별화와 환경소재를 개발해 고객요구를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주효했다”는 전 사장은 “95년 20억원, 96년 28억원 등 주변경기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기술개발 및 물류흐름의 생산체계를 갖추어 유저들의 만족에 최우선 하는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완충재가 대량생산에 맞춰져 있는 반면 영동은 소량 다품종 시대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하게 필요한 금형의 가격을 낮추고 하루만에 샘플링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는 등 경쟁업체들보다 앞서가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루동안의 샘플링작업을 위해 포장설계, CAD/CAM, 팔레트시스템이 일관되게 진행되도록 설비 및 운영체제를 바꾸었고 원자재 물량을 월계획, 주간생산계획을 상호보충제도로 납품업체와 계약하여 적재

장소를 최소화했고, 재고를 15일에서 3일분량으로 줄이고 물류비도 줄여 품질과 납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영동의 가동율은 90% 이상이 되고 있는데 기계의 호환성을 높여 제품의 모델변경 시간을 짧게하고 공정별 이상유무를 항시 체크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기술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전 사장은 “소속원이 의식을 갖고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기존 문제의 현상과약을 통해 자료화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지도 좋아야 하지만 답이 없는 문제지는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라며 의미있는 질문을 하는 전 사장은 “직원들이 희생하고 노력해준 덕분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육지원에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영동은 여타제조공장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안락하고 작업조건도 좋다. 회사는 기본작업조건을 맞춰 주고 종업원들을 혹사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작업장이 청결하고 생산라인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작업조건표, 기계메뉴얼 등이 갖춰져 있고 작업에 대한 실패와 성공사례를 정리하여 항상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항상 강조하듯이 제조업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전 사장 역시 책임감과 보람을 갖고 누구보다 모범적인 생활로 더불어 사는 생활을 실천해 가고 있다.

영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또 하나 조건은 관리와 생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 사장의 관리능력과 김 이사의 설계 생산

능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배가된 생산능력, 개발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이다.

생산일보, 품질현황, 매입현황이 전 직원들이 알 수 있게 공보되고 작업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전 사장은 국내외의 경영 및 제품개발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컨설팅 업체나 외국의 관련업체와 교류를 통해 항시 자료를 주고 받고 있다.

이제 영동은 21세기 경쟁력있는 업체를 만들기 위해 기초를 다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환경문제이다. 환경규제품목이란 인식 때문에 주춤하기도 했지만 환경은 규제보다 감량 재활용을 적절히 응용해야 된다고 전 사장은 강조한다.

물론 모든 문제가 중소기업체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대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규제보다는 사용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일례로 모 가전사의 포장자재 전시회 때 개선전 제품으로 영동의 제품이 전시되고 개선후 제품으로 펄프몰드 제품이 전시되는데 자극받아 전 사장이 개선후 제품으로 자리하겠다는 의지로 연구 개발, 이제는 가전사에서 포장완충재의 개발, 설계를 영동에 의뢰할만큼 상황이 바뀌었다. 그 이후 얻은 전 사장의 별명이 개선 전 (田: 성씨) 사장이다.

전 사장은 이름에 걸맞게 포장완충재에 대한 모든 것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씩 바꾸고 반드시 실천한다’는 사시처럼 영동의 꾸준한 변화와 실천을 기대한다. 

오선진기자